

당대표 후보들 전략·공약·경쟁력 집중분석

<후보는 기호順>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레이스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당권의 향배를 좌우할 호남 민심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3~14일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당원 간담회에 이어 15일 광주 TV 토론회, 18일 광주·전남 합동연설회, 19일 전주 TV 토론회, 20일 전북 합동연설회가 개최되는 등 연일 ‘호남 대회전’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특히 당권 경쟁 구도가 ‘친노와 비노’, ‘김대중과 노무현’, ‘호남과 영남’, ‘과거세력과 미래세력’ 등으로 극명하게 갈리면서 흥행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빅 2’를 형성하고 있는 박지원·문재인 후보가 이번 당권 경쟁에서 패배한다면 정치적 치명상을 피할 수 없는 극적 요소가 있는데다, 이번 전대가 호남 정치 복원의 갈림길이라는 점도 호남 민심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일보는 18일 당권 주자 광주·전남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혁신 공약과 집권 전략, 경쟁력 등을 조명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뼈깇는 혁신으로 위기의 당 구할 것
계파 없는 ‘공천 혁명’ 반드시 실천

■ 문재인 후보



강력한 혁신과 변화를 통해 위기에 빠진 당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타 후보에 비해 혁신의 이미지와 진정성이 높는데다 호남과 영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책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생활 정당’, 시·도 당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풀뿌리 ‘분권 정당’, 당원과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정당’을 실현해 내겠다는 것이다.

당내 최대 세력인 친노 진영의 실질적 수장이라는 점에서 ‘계파 패권주의’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계파 없는 ‘공천 혁명’을 약속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에 의한 공천으로 계파로 인한 분열과 갈등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례대표는 지역과 분야를 미리 결정, 국민추천제를 통한 상향식 공천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계파 패권주의 비판
‘강한 대표론’으로 응수

문 후보는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공천권에 연연하겠느냐며 당의 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총선과 대선 승리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당권 도전의 진정성을 호소하고 있다.

당권과 대권도 모두 차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고 당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당권·대권 분리론’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표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잠재적 대선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당의 단합은 물론 지지층 결집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총선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선 주자 자리만 노리고 당의 위기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호남 민심의 선택과 관련, 문 후보는 역사의 고비와 위기 때마다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혁신과 통합에 앞장서 왔던 ‘호남 정신’을 믿는다는 입장이다.

냉철한 판단과 실천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창출했던 호남 민심이 위기의 새정치연합을 살릴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판세에 대해서도 민심과 당심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무난한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공약

- 지는 정당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 강력한 당대표, 계파 없는 공천혁명
- 소득주도성장 유능한 경제정당
- 국민 속 생활정당, 풀뿌리 분권정당
- 소통 참여 당원-시민 네트워크 정당

집권전략

- 유능한 경제정당 생활정당으로 혁신
- 전국 정당, 세대 공감 정당 실현
- 지지율 40%, 강한야당 총선승리

나의 경쟁력

- 당 지지율과 당 존재감을 높일 책임자
- 수권정당으로서 정책비전을 갖춘 후보
- 아권 전체를 묶어낼 수 있는 후보

세대교체·계파척결만이 살 길
시스템 공천·분권형 정당 약속

■ 이인영 후보



세대교체를 화두로 내걸고 있다. 세대교체만이 위기의 새정치연합을 새로이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는 것이다.

박지원·문재인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친노·비노의 프레임이 벗어날 수 없어 갈등과 분열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갈등과 분열을 결별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계파와 지역에서 자유로운 후보를 중심으로 세대교체의 깃발 아래 모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리더십의 전면 교체를 통해 당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처럼 창업 정치를 해야 하는데 계파와 지역을 기반으로 안주하는 세력으로는 패배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당의 전면적 개편을 위해 우선 시스템 공천 제도를 확립, 야만 공천과 밀실 공천의 가능성을 차단시키고 ‘사전’(私薦)의 통로가 되고 있는 전략공천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념보다는 민생 중심으로 당의

“운동권 진영 기득권 안주
낮은 자세로 극복할 것”

노선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천권, 재정권, 인사권 등 3권 분립의 ‘분권형 정당’ 운영을 약속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축소, 대·중·소기업 상생 등 민생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당내 운동권 진영이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하며 정직하고 낮은 자세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호남 민심과 관련, 이 후보는 자신이 가장 호남 정신에 적합한 후보라는 입장이다.

호남이 5월 항쟁의 정신을 잇고 있는 자신을 선택하면 새정치연합에 혁명적 변화는 물론 나아가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 노무현 바람을 일으켰던 호남 민심이 이번 전대에서 세대교체의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인 판세에 대해, 이 후보 측에서는 이미 ‘빅 2’ 구도가 굳어질 일어났으며 중반전부터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혼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혁신공약

- 계파척결로 리더십 교체
- 시스템 공천
- 민주적 정당운영
- 시도당 재정과 인사자율권 보장
- 민생중심의 당 정체성 확립

집권전략

- 혁신과 진보로 민주당의 역사 복원
- 계파공천이 아닌 시민공천, 공정공천
-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30%로 소득 주도성장 추진

나의 경쟁력

- 젊기에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일한다
- 계파와 지역으로부터 자유롭다
- 광주항쟁의 세례를 받은 사람

계파 얹매이지 않는 통합 리더십
“당권·대권 분리해야 정권 창출”

■ 박지원 후보



박 후보는 계파에서 자유롭고, 정권 창출의 경험과 검증된 정치력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계파에 얹매이지 않는 통합의 리더십과 검증된 정치력으로 강한 야당을 만들고 정권 창출의 경험을 살려 수권 정당의 길을 트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후보는 당권과 대권 분리론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당권과 대권을 모두 갖겠다는 것은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경쟁 상대인 문재인 후보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 친노 진영의 대선 주자인 문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다른 잠재적 대선 주자들의 갈등을 피할 수 없고 ‘친노 정당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워 결국 수권 정당의 길은 멀어진다는 것이다. 개인의 정치생명이 아닌 당의 미래와 운명을 보고 대표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동영 전 상임고문의 탈당도 결국 계파싸움의 산물이라며 자신이 대표가 된다면 ‘떠나는 정당’이 아닌 통합과 단합을 통한 ‘모이는 정당’을 만들어 가겠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당 혁신 방안으로 영남 등 전략지역 비례대표 의무 배정, 공천심

과거 이미지 지적엔
치열한 ‘현장 정치’ 응대

사위원회 폐지 및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30만 정에 당원 양성, 시·도당 권한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지역 비례대표 의무 배정은 영남과 강원 등의 당원들로부터 높은 호응과 함께 전국적 지지 기반 확대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이미지에 대한 비판에는 ‘치열함’으로 응대하고 있다. 그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정치 현장에서 뜨거운 사투를 벌여 왔다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시대와 역사의 요구를 담은 정치적 치열함으로 계파주의의 벽을 넘고 통합을 이뤄 수권 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민심의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박 후보는 단순한 지지 구도를 넘어 새정치연합에 호남의 가치와 정신을 복원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인 판세에 대해, 박 후보 측에서는 계파 패권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당권은 박지원’이라는 공감대가 대의원과 권리당원 층에서 폭 넓게 형성되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혁신공약

- 공천심사위 폐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 전략지역 비례대표 12명 배정
- 지방선거 공천권 시도당 전면이양
- 시도당 국고보조금 대폭 지원
- 30만 정에당원 양성

집권전략

- 통합, 혁신, 강한 야당으로 지지층 결집
- 전략지역 지지율 제고로 전국정당화
- 지역 정책공약 개발 및 생활정치 강화

나의 경쟁력

- 정권 창출과 국정운영 경험 및 실천력
-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등을 거친 검증된 정치력
- 사심없는 무계파로 통합혁신의 책임자

200억 한정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MG새마을금고 빚고을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